

2007년 인천앞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준공

부유차단막·어민수매·정화선수거



이번 사업은 장마철 한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 및 어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어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인천 앞바다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

면, 강화 연화수로에 총 연장길이 500m의 부유차단막을 설치하여 장마철 한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 243톤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초지, 소래, 연안부두에서 어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어구 등을 1,100톤을 수거하였다. 또한 정화선을 이용하여 인천 앞바다 해저면에 침적된 쓰레기 1,008톤을 수거·처리 하였다.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해 5월 1일 착수, 추진된 2007년 인천앞바다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을 지난해 12월 30일 준공했다.

총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서 협회는 계획 2,217톤 대비 106%를 초과한 2,353톤을 수거·처리하는 실적을 냈다.



협회, '07년도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운영성과 우수

'바다여행' 사이트와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거양



한 국어촌어항협회가 '07년 해양관광전문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정교 맛과 멋이 넘치는 한국형 아마추어바다관광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동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높은 운영성과를 평가받았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현, 해양의식고취, 어업인의 참여를 위한 컨설팅, 교육, 공감대 형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바다여행' 사이트와 협회 고유업무인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넓혀갈 계획이다.